



유 상 호
농협충남지역본부장



*농협의 새얼굴 NH는 농협의 영문자 Nong Hyup의 머릿글자로 Nature & Human, New Hope 등 자연과 인간의 조화, 새로운 희망과 행복을 상징적으로 표현한 로고임

농협충남지역본부

농협충남지역본부(본부장 유상호)는 농업인의 권익보호를 위해 1961년에 설립되어 지역에서 생산되는 농축산물의 유통 및 은행사업, 보험사업 등 다양한 사업을 하고 있으며 직원은 7,800여명으로 296천명의 조합원을 위해 지역본부에 경제사업부 등 4부 12팀을 두고, 지사무소로 중앙회 60개소, 조합 153개소로 조직되어 있다.

◇ 소외계층에 대한 건강한 겨울나기 실천

- 충남 농협 전 직원이 자발적으로 사랑의 천사운동(급여에서 매월 1구좌당 1,004원을 자동이체하여 소외계층을 위해 지원)을 전개하여 독거노인 및 소년소녀가장, 조손가정에 대한 건강한 겨울나기 등의 이웃사랑을 실천하고 있다.

◇ 결혼이민여성농업인에 대한 건강검진 확대

- 2006년에 전국최초로 외국여성농업인을 대상으로 건강검진을 실시하여 큰 호응을 얻었고 금년에는 결혼이민여성농업인과 가족까지 확대하여 실시하였으며 암검사, 산부인과, 갑상선검사 등 20여 진료과목을 작년에 이어 올해에도 한국건강관리협회 대전·충남지부와 함께 실시하였다.

◇ 농업인의 건강증진 도모를 위한 농촌사랑 한방진료

- 농업인 및 공제계약자와 어려운 이웃을 대상으로 농촌지역을 직접방문하여 건강검진 및 심혈관, 중풍 등 각종 질환



* 연탄나누기



* 김장김치, 밀반찬 나누기

환을 조기진단 치료하고 결과에 따라 한약처방을 실시하였으며 2006년 1,000명에서 2007년에는 2,000여명으로 확대하였다.

◆ 국민에게 안전한 먹거리제공을 위한 우리농축산물 지킴이 역할

- 우리농산물 지킴이 운영

- 농협 식품매장(하나로마트, 하나로클럽)의 위생점검 및 농축산물 원산지표시를 고향을 생각하는 주부들의 모임이 직접 점검하여 소비자에게 안전한 먹거리를 제공하고 있으며 2004년부터 288개 매장에 대해 연 4회 운영하고 있다.

- 직거래 장터에 대한 농약잔류검사

- 주 1회 잔류농약 검출빈도가 큰 업체류를 위주로 잔류농약 검사를 실시하여 안전농산물 공급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.

- 한우 공동브랜드사업 추진으로 고품질 한우 공급

- “충남 토박이한우”라는 뜻의 토바우사업은 충남 농협과 지역축협, 16개 시군과 충남도청이 공동계열화 연합사업으로 추진하는 사업의 하나로 현재 950농가에서 45천두를 사육하고 있다. 송아지입식부터 사양관리 및 판매까지 전 과정을 위생적으로 처리하여 소비자에게 규격화된 고급육 공급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.

◆ 내부고객만족 실천

- 지역본부내 공제보험팀에 전문직을 배치하여 지역본부 직원의 건강점검(혈압 및 혈당)을 수시로 하고 있다.

- 체력증진행사 개최

- 매년 2회 전 계통사무소에서 체력증진행사를 실시하고 있어 조직단위별 내부고객 만족으로 생산성제고에도 힘쓰고 있다.

◆ 주말농장 · 팜스테이운영으로 건강한 가정문화 조성

- 주5일 근무제와 토요 격주 휴무제가 정착된 뒤 주말농장은 가족들과 대화를 나누며 유대감을 느끼는 공간으로, 주부들에게는 유기농식탁을 꾸릴 수 있는 텃밭으로, 아이들에게는 자연을 체험하는 학습장으로 활용되고 있다.
- 지역본부의 경우 주말농장은 지난 96년부터 가족단위로 8평을 한 구좌로 운영하고 있으며, 분양가는 퇴비와 종자 등을 포함하여 평당 5,000원 선이다.
- 그리고 건강한 여가문화 조성과 농촌체험을 위한 팜스테이마을 운영 또한 활발하게 운영하고 있다. 🌈



* 결혼이민여성농업인 건강검진



* 한방진료



* 농촌체험



* 팽이치기 체험